

#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	<p>[일상 속 불편을 아이디어로] 일상 속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타인의 불편함에 공감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듭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 앱 '바운더리'에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상황 대처 학습, 카드 맞추기 등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습을 위해 종이 학습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학습 기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앱 환경으로 옮겨 공간에 제약 없이 학습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가족 중 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친척과의 교류와,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을 읽은 후, 해당 경험을 토대로 기획하였습니다.</p> <p>[다양한 관점을 가진 개발자] 고등학교 3년동안 농구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밴드부로 활동했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가지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농구 할 사람을 모아주는 앱 'BSSM Basket'을 기획하고 개발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읽었다는 착각' 내용에 영감을 받아 어려운 글을 쉽게 바꿔주는 앱 'Readable'을 기획하고 개발했습니다.</p>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 준비한 내용	<p>[서비스 출시 및 운영 경험] 공항에서 주차를 해야할 때 남은 차량 수를 빠르게 알 수 없어서 불편했던 경험을 토대로 김해공항 실시간 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500+명의 사용자가 사이트를 1,600+회 방문했었습니다.</p> <p>[교육 도메인에서 쌓은 경험] 저는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 '코그니션 트레이닝' 앱을 기획·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상황 대처 학습, 카드 뒤집기, 숨은 과일 찾기 등 다양한 인지훈련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Readable' 앱을 개발했습니다. React Native 프론트엔드와 Flask 기반 백엔드를 ChatGPT API와 연동해 구현했습니다. 초기에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아예 다른 의미로 변환하는 문제를 겪었으나, 커스텀 스크립트를 작성해 시스템 메시지와 사용자-어시스턴트 메시지 포맷을 최적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사용자 피드백 반영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p>
협업 활동	<p>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독서대 '익따' 팀원으로서 하드웨어 간 통신 API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이전 비슷한 도메인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팀원보다 한발 빠르게 할 일을 끝낸 뒤, 다른 파트에서 일어나는 에러를 같이 수정해주면서 팀원들과의 효율적인 협업 방식을 확립했습니다.</p> <p>협업 이외에도 백엔드 개발자로서 효율적이고 빠른 설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FastAPI를 활용해 안정적인 백엔드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극대화했으며,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p> <p>Notion을 활용해 백엔드 API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하드웨어 팀과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명확히 정의된 API 덕분에 개발자들이 요구사항을 빠르게 이해하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팀원 간 소통과 협업 효율을 크게 높인 경험을 쌓게되었습니다.</p> <p>저는 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을 넘어, 팀 전체에 기여할 부분을 능동적으로 찾아 참여하는 협업을 지향합니다.</p>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p>저는 비전 있는 조직에 합류하여 개발자로서 실무 경험을 쌓고, 동시에 팀 운영과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드 리뷰, 애자일 스프린트 회의 참여, 백로그 관리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흐름을 이해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또한, 동료 및 리더와 협업하며 요구사항 도출, 일정 조율,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싶습니다.</p> <p>이를 통해 저는 최신 기술 스택을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팀워크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 조직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 동기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시기에 현업에서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수행하는 것은 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p>

2024년 12월 4일

지원자      김규민      (인)